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27

지진 재해를 극복하고 꽃봉오리를 활짝 피운 꽃창포가 불만하다는 뉴스를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진흙더미를 헤치고 나와 만발한 꽃을 보면 지진 재해로 부터 헤쳐나온 사람들에게는 감개무량할겁니다.

저희들도 지진 재해를 극복하고 꽃봉오리를 터뜨리는 날이 오겠는지요. 진흙을 밀어 헤치고 새싹이 움트듯이 부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는지요. 스스로는 힘겨워 헤쳐나올 수 없는 무거운 진흙들을 하나님과 많은 분들의 손으로 헤쳐 주시는 것에 감사로 의지해도 되겠는지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고 역사하심을 그저 바라보며 그 날을 기다리기로 하지요. 긴 겨울을 견디며 봄을 기다리는 것은 일본 동북인 제일의 특기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피난 생활 3 개월째로 접어든 지금이 아마도 가장 어려운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력질주하는 마치 마라톤과도 같다”고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 전력을 다해 달리지 않았다면 저 대지진 재해에서 살아남아있을 수 없었겠지요.

그렇지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전력으로 달릴 수 있겠는지요. 과연 우리들은 그 때부터 언제까지 전력질주를 계속한 것인지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적절한 감속 조치를 취했는지요?

중장거리에도 버티어낼 수 있는 페이스 배분은 적절하게 취했는지요? 혹은 아직 단거리 페이스인데 중장거리 코스로 들어와버렸는지요?

당초에는 늦어도 한 달정도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이 설마 막연한 기대를 떠나 어느사이 중거리로 변해 장거리의 양상까지 보이는 것은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많은 정보 속에서 신약성서 시대에 풍랑이 몰아치는 갈릴리호수를 꾸짖어 “잔잔하라” 하시니 거친 풍랑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명령과 그 권위를 사모하게 됩니다.

필립·얀시(Philip Yancey) 의 저서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 되는가’ (생명의 말씀사) 내용중에 G.K. ·체스터턴(Gilbert Keith Chesterton) 말의 인용인 ‘자연은 어머니’라는 표현은 성서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어머니가 아니고 자매입니다. 우리들 인간과 동등하게 같이 타락한

피조물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 장 22 절) 이 타락한 별 위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개개인 인간,,,처럼 이 별이 하나님의 본래의 디자인으로부터 벗어나버렸습니다.라고.

저는 일본인이기 때문에 '자연은 어머니'라는 표현에 어색하지 않았고 다른 많은 아시아인처럼 원래 자연도 신음하며 속죄를 바라고 있다는 사상도 없었습니다만 흔들려서는 안되는 대지가 이렇게 까지 흔들리고 상상도 못했던 진흙을 말아 올린 검은 바닷물이 육지의 깊숙한 곳까지 덮쳐오면 아주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여 자연이 여기까지 황폐해지고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여진이 그치지 않는 대지에 서서 예전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마가복음 4 장 39 절)라고 명령하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떨고 있는 저희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 (마가복음 6 장 50 절)고 그 당시와 같이 말씀해 주옵소서.

6 월 18 일 오사카에서